

‘심쿵’ 하게 만드는 첫사랑 이야기

박보영-김영광 ‘너의 결혼식’ 22일 개봉

“세상의 절반은 여자지만, 너는 하나뿐이야.”
 손발이 오그라드는 대사인데도, 이상하게 ‘심쿵’ 해진다. 어디서 보고 들은 듯한 뻘한 스토리지만,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첫사랑 이야기의 마법이다. 인스턴트 사랑이 넘치는 요즘에 보기 드문 순애보라서 더욱 그렇다.
 오는 22일 개봉하는 ‘너의 결혼식’은 자꾸만 여긔나는 두 남녀의 인연을 그린다. 남자는 10년 넘게 한 여자를 바라보지만, 여자는 늘 자기 결혼 지키는 그가 편한 친구 같고, 오빠 같고, 공기 같을 뿐이다. 대신에 보는 순간 3초 만에 결정

된다는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난다.
 우연(김영광 분)은 고3 전학생 환승희(박보영)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학교에서 싸움박질을 입삼던 그는 승희의 공식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 바른 생활을 하기로 한다. 승희 역시 자신의 뒤를 쫓아온 아다니며 해맑게 웃는 우연이 싫지 않다.
 두 사람은 학교도 함께 ‘땡땡이’ 치고 떡볶이를 먹으며 데이트를 즐기지만, 거기까지다. 승희는 우연에게 “너는 좋은 아이였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훌쩍 사라진다.
 방향 끝에 대학도 포기하고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연은 모 대학 신입생

모집 리플렛에서 승희 사진을 발견한다. 그때부터 우연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 승희와 같은 대학, 같은 하숙집에 입성한다. 하지만 한발 늦었다. 승희에게는 이미 멋진 남자친구가 있다. 또다시 우연의 암울한 학창시절이 시작된다.
 영화는 고교 시절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이 될 때까지 매번 사랑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두 사람을 쫓아간다. 감정 이입이 되는 인물은 우연 쪽이다. 그가 겪는 첫사랑의 설렘부터 짝사랑의 외로움, 실연의 아픔, 그리움 등 사랑의 다양한 감정들이 소소한 에피소드를 통해 전해진다.

물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첫사랑을 그린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본 장면도 꽤 등장한다. 그래도 그런 익숙함을 공감으로 바꾸는 매력이 있다. 현실감 넘치는 대사와 에피소드, 유머, 배우들의 연기 덕분에.
 우연은 버스 단말기에서 울리는 “환승입니다” 소리에 환승희를 떠올리고 달려 나간다. 우연과 친구들이 나누는 연애, 결혼, 취업에 관한 고민과 대화들도 요즘 젊은이들이 맞장구를 칠만하다. 거듭된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한 뼉씩 성장하는 모습도 두 사람을 응원하게 한다.
 두 시간 가까이 폭염을 맞고 마음 편히



웃으며 보는 데이트 무비로 손색이 없다. 제목은 ‘나의’ 결혼식이 아니라 ‘너의’ 결혼식이다. 누구나 예상하는 뻘한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의미다.
 동안으로 유명한 박보영(28)과 훗날 외모가 돋보이는 김영광(31)이 고등학생 연기까지 대역 없이 소화했다. 둘의 고교

최장수 아이돌 ‘신화’ 20주년 기념 앨범 발매



10월 콘서트 개최...내달 3일 선예매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이달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을 내고 10월 콘서트를 펼친다.
 8일 소속사 신화컴퍼니에 따르면 신화는 28일 데뷔 20주년 스페셜 앨범 ‘하트’(HEART)를 발매하고 10월 6-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주년 기념 공연 ‘하트’를 개최한다.
 공연이 열리는 체조경기장은 신화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콘서트를 연 곳이자 팬들과 특별한 순간을 함께 보낸 장소다.
 신화컴퍼니 측은 “체조경기장은 신화와 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곳”이라며 “첫 콘서트 장소이자 지난 2008년 10주년 기념 콘서트, 2012년 멤버들의 군 복무 이후 4년 만의 컴백 무대를 연 곳”이라고 말했다.

1998년 1집 ‘해결사’로 데뷔한 신화는 ‘티오피’(T.O.P), ‘헤이, 컴 온!’(Hey, Come On!), ‘와이드 아이즈’(Wild eyes), ‘퍼펙트 맨’(Perfect Man), ‘브랜드 뉴’(Brand New), ‘디스 러브’(This Love) 등 다수 히트곡을 발매하며 멤버 교체나 해체 없이 활동했다.
 지난 3월 24일 데뷔 기념일에는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주년 팬파티를 열었다.
 신화컴퍼니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20주년 공연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2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꽃과 케이크가 한편의 수채화처럼 담겼다.
 공연 티켓 팬클럽 선예매는 9월 3일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 진행된다.



보이그룹 임팩트, 디지털 싱글 ‘나나나’로 컴백

보이그룹 임팩트가 오는 16일 디지털 싱글 ‘나나나’로 컴백한다고 소속사 스타제국이 8일 밝혔다.
 임팩트가 신곡을 내기는 지난 4월 싱글 ‘빛나’ 이후 9달 만이다.
 스타제국은 “데뷔 3년 차에 접어든 임팩트의 첫 번째 여름 컴백”이라며 “어느 때보다 독특한 매력을 담아냈다. 멤버들의 성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임팩트는 주얼리, 나인뮤지스, 제국의

아이들을 배출한 스타제국이 6년 만에 내놓는 보이그룹이라는 타이틀로 2016년 1월 데뷔한 그룹이다. 이지만 (25), 박제업(25), 김태호(25), 이상(23), 나용재(20)까지 5인조로 구성됐다.
 특히 박제업이 지난해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에 출연해 탄탄한 보컬 실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2라운드 들어선 여름 스크린 대전

‘공작’, ‘맘마미아!2’ 등 기대작 가세

여름 극장가 스크린 대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신과함께-인과연’(신과함께2)과 ‘미션임파서블:풀아웃’이 지난 7일 기준 734만 명과 579만 명을 각각 동원하며 초반 압승을 거둔 가운데 ‘공작’, ‘맘마미아!2’ 등 기대작들이 가세했다.
 윤종민 감독 신작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극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 실체를 캐기 위해 북한으로 잠입한 실존 안기부 첩보원 이야기를 그렸다. 개봉 후에는 ‘웰메이드 스파이 영화’라는 호평이 많은 가운데 ‘액션신이 없고 정치적 색채가 강해 다소 지루하다’는 평도 나온다.
 이날 개봉한 ‘맘마미아!2’(에매울

16.5%)는 흥행 복병으로 꼽힌다.
 10년 전 국내에서 457만 명을 동원한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2008) 속편으로, 전편의 감성을 이어받으면서 한층 화려해진 볼거리와 스웨덴 그룹 ‘아바’(ABBA)의 명곡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애니메이션 ‘몬스터 호텔3’과 ‘명탐정 코난:제로의 집행인’ 역시 동시에 간판을 내걸고 가족 관객을 맞고 있다.
 앞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헬로 카봇:백악기 시대’와 ‘신비아파트: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은 각각 70만 명과 65만 명을 불러모으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대작 영화 틈새 속에서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관객몰이하는 영화도 있다.
 지난달 26일 개봉한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은 1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한 다양성 영화 중 스크린 수 100개 미만 작품 가운데 가장 빠르게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 추세라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최고 흥행작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의 최종 스코어(12만6,724명)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으로, 할머니의 연금과 흥진 물건으로 살아 가던 가족이 우연히 길에서 떨어진 다섯 살 소녀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독 최고 흥행작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의 최종 스코어(12만6,724명)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으로, 할머니의 연금과 흥진 물건으로 살아 가던 가족이 우연히 길에서 떨어진 다섯 살 소녀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폭염’ 페스티벌 업계도 비상

온열질환 우려...24시간 의료팀 가동·그늘막 확충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페스티벌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야외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특성상 일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오는 10~12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제13회 ‘KB국민카드 스타샷 X 2018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주최 측은 전방위 대책을 세웠다.
 우선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을 위해선 사를 내내 살수차를 운영한다. 살수차는 무대 안팎으로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힐 예정이다. 곳곳에 대형 선풍기도 설치한다.
 직접 관객은 대형 텐트에서 땀병을 피할 수 있다. 잠시 공연을 보지 않고 쉴 땀 에어컨이 가동되는 컨테이너 ‘쿨존’에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
 24시간 의료팀도 가동한다. 구급차 2대가 배치되며 전문의료진 4명, 응급구조사 2명, 스태프 420명이 상주한다. 소방대원 20명과 경찰 2개 중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펜타포트 흥보대행사 PRM아이디어 램 관계자는 “111년 만의 폭염이라고 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여러 곳에 그늘막을 세워 한낮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5일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서



오는 8월 말에 열리는 ‘2018 구례 자연드림 록페스티벌’ 포스터.

열리는 ‘2018 구례 자연드림 록페스티벌’ 축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례군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의료 부스를 운영하고, 전면에 견주 그늘막과 파라솔도 확충하기로 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도 갖추기로 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관계자는 “8월 말이라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려 한다”며 “현장에 물과 같은 음료를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륜남은 했어도 불임남은 처음”

“나쁜 놈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왔다는 게 감사하죠.”
 많은 시청자는 배우 황동주(44)를 나쁜 역할 전문배우로 기억한다. 그는 다수 드라마에서 불륜남, 마마보이 등 지질하거나 악한 캐릭터로 열연했다.
 KBS 2TV 주말극 ‘같이살래요’에서 박유하(한지혜 분)의 전남편 채성운을 연기했다. 극 중 불임인 채성운은 정은태(이상우 분)의 유전자를 훔쳐 딸 은수(서연우)를 낳았다.
 7일 만난 황동주는 “불륜남은 했어도 불임은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당황

‘같이살래요’ 황동주, 비겁하고 이기적 ‘채성운’ 열연
 스러웠다”고 웃었다.
 “불임 설정은 출연 결정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부각될 줄 몰랐어요. 전에도 육먹는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역할을 이미지 생각해서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비겁하고 이기적인 ‘나쁜 놈’이지만 황동주는 채성운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자신이 불임이고 아이도 자신의 유전자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는 게 알

려지면 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 채성운이 어떻게든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포악하고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했어요.”
 그는 “누가 봐도 거슬리지 않게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며 “예능 출연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드라마 속 나쁜 캐릭터로만 보이는 제 모습이 아니라 인간 황동주의 모습을 예능을 통해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